

## 간호대학생의 죽음태도 및 영향요인

김종근<sup>1</sup>, 오수민<sup>1</sup>, 천의영<sup>1</sup>, 유장학<sup>1\*</sup>  
<sup>1</sup>수원여자대학교 간호학부

### Factors influencing the attitude toward death in college nursing student

Jong Gun Kim<sup>1</sup>, Su Min Oh<sup>1</sup>, Eui Young Cheon<sup>1</sup>, Jang Hak Yoo<sup>1\*</sup>

<sup>1</sup>Department of Nursing, Suwon Women's University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자아존중감, 생명의료윤리의식, 삶의 질, 죽음태도간의 연관성을 분석하고, 죽음태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함이다. 자료수집은 경기도 소재 4년제 간호대학의 학생 130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로 조사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4.0을 이용하여 Independent t-test, One-way ANOVA,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s, Multiple regression으로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자아존중감과 죽음태도, 생명의료윤리의식과 죽음태도 간에 각각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대상자의 죽음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자아존중감( $\beta=.25$ )과 생명의료윤리의식( $\beta=.11$ )으로 나타났으며, 총 설명력은 21.2%였다( $F=10.4$ ,  $p<.001$ ). 본 연구를 통하여, 간호대학생의 죽음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을 파악하고 긍정적인 죽음태도를 형성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개발이 필요하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relationships between self-esteem, and the awareness of biomedical ethics and the quality of life and death attitude, as well as the factors influencing the death attitude among 130 nursing students in college.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an independent t-test, one-way ANOVA,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s, and multiple regression with the SPSS Win 14.0 Program.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s were observed between the self-esteem and death attitude, between the awareness of biomedical ethics and the death attitude. The predictors for the death attitude were self-esteem ( $\beta=.25$ ) and awareness of biomedical ethics ( $\beta=.11$ ). The model explained 21.2% ( $F=10.4$ ,  $p<.001$ ) of the variance. The findings indicated that more study will be needed to explore the factors influencing the death attitude and to develop education programs for reinforcing a positive death attitude among college nursing students.

**Keywords** : Awareness of biomedical ethics, Death attitude, Self-esteem, Quality of life

## 1. 서론

### 1.1 연구의 필요성

누구나 삶의 마지막으로 죽음의 과정을 경험한다. 그것이 자신의 죽음일 경우는 물론이지만 타인의 죽음 앞에서든 사람들은 대개 어려움을 겪는다. 특히 입상에서 죽음을 앞둔 환자나 가족들을 대상으로 간호를 제공하고, 전문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간호사에게도 이러

한 경험은 매우 어려운 일로 받아들여진다.

간호사는 임종환자에게 다가갈 때 죽음의 불안에 직면하지만 이 불안은 죽음을 맞는 환자를 도와주기 전에 직면하고 받아들여야 한다[1]. 하지만 많은 간호사와 간호대학생이 죽음을 대하거나 처리할 때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2]. 죽음에 직면한 환자와 그 가족을 돌보는데 능력의 한계를 경험한 전문가들은 직업적인 회의감을 느끼며, 환자의 죽음 후에는 후회와 죄책감을 경험하여 전

\*Corresponding Author : Jang Hak Yoo(Suwon Women's Univ.)

Tel: +82-31-290-8105 email: [janghryu@swc.ac.kr](mailto:janghryu@swc.ac.kr)

Received November 26, 2015

Revised (1st December 22, 2015, 2nd January 4, 2016)

Accepted January 5, 2016

Published January 31, 2016

문가로서의 직업적인 한계성을 넘어서 개인적 차원에서 의 무력감과 상실감으로 연결되어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3].

간호대학생은 다른 전공의 대학생에 비해 죽음에 이른 대상자와 가족들을 임상실습을 통하여 자주 접하며 간호수행에 참여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간호대학생은 간호사와 마찬가지로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이러한 경험은 생명과 관련된 인식에 따라 죽음을 해석하고 죽음에 대한 태도에 반영된다. 또한 간호학은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학문으로서 개인 혹은 인격에 대한 존중이 모든 생명의료윤리 문제를 이해하고 평가를 결정하는데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으로 인지되고 있으므로[4], 간호대학생이 어떠한 생명의료윤리의식을 지니고 있는지 알아보는 것은 임상현장에서 임종말기대상자의 존엄사를 돕기 위한 생명의료와도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매우 중요하다.

간호대학생의 죽음태도와 관련된 국외논문에서는 간호대학생의 정서적 기술과 죽음교육프로그램이 전문적인 간호교육커리큘럼 안에서 교육되어야 함의 중요함을 제시[5]하였고, 회복력과 자아존중감이 간호대학생의 죽음태도형성에 중요한 요인으로 제시한 연구[6], 임종말기대상자간호는 간호대학생의 죽음태도 및 전문직관이 영향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연구[7,8]가 있었다.

이와 관련된 국내논문을 살펴보면 간호대학생의 영적 건강과 자아존중감은 죽음태도와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고하였고[9], 바람직하지 못한 죽음태도를 형성하여 자살을 일으키는 일반 청소년과 대학생들은 대개 자아효능감이 낮아 우울과 삶에 대한 불만족을 경험하게 된다고 보고한 연구[10], 자아존중감이 낮을수록 삶의 만족도는 저하되며 죽음에 대한 태도가 부정적[11]이며, 간호대학생의 자아존중감과 삶의 만족 역시 죽음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제시한 연구[12]가 있었다.

이에 죽음에 대한 연구는 다양하게 이루어져 왔고 죽음 불안에 처한 임종 환자를 대하는 건강관련 전문가들에게 특히 강조되어 왔으나[13], 특히 그러한 상황에서 의료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생명의료윤리 즉, 윤리적 의사결정 상황에 직면하였을 때 간호사의 환자 옹호와 지지간호에 대한 의사결정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임상현장에서 임종과 죽음을 겪는 대상자들을 접하고 추후 임종말기대상자에게 간호를 제공할 간호대학생에게 생명의료윤리정도를 파악하고 건전한 죽음태도형성을 위

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간호대학생이 지각하는 자아존중감, 생명의료윤리의식과 삶의 질 및 죽음태도의 정도를 파악하고, 죽음태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확인함으로써 예비의료인으로서의 건전한 죽음태도 형성을 위한 간호교육의 기초자료로 제시하고자 한다.

## 1.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대학생이 지각하는 자아존중감과 생명의료윤리의식, 삶의 질 그리고 죽음태도의 정도를 파악하고, 자아존중감과 생명의료윤리의식, 삶의 질이 죽음태도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한다. 그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간호대학생이 지각하는 자아존중감, 생명의료윤리의식, 삶의 질, 죽음태도를 파악한다.
- 2)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아존중감, 생명의료윤리의식, 삶의 질, 죽음태도의 차이를 분석한다.
- 3) 간호대학생이 지각하는 자아존중감과 생명의료윤리의식, 삶의 질 그리고 죽음태도의 관련성을 분석한다.
- 4) 간호대학생의 죽음태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한다.

## 2. 연구방법

### 2.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자아존중감과 생명의료윤리의식, 삶의 질이 죽음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이루어진 서술적 상관관계연구이다.

### 2.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경기 수원지역에 위치한 S 대학에 2015년 2학기에 등록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표본은 편의추출로 선정되었다. 대상자의 윤리적 측면을 고려하여 서면 동의를 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본 연구의 취지를 설명하였고 응답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언제라도 철회할 수 있으며, 회수된 자료는 익명으로 처리됨을 알리고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자료 수집은 2015년 10월 16일부터 10월 30일까지 간호대학의 임상실습을 경험한 3, 4학년 학생들을 대

상으로 하였으며, 연구자가 직접 설문지를 배부하여 학생 스스로 설문지에 답을 기록하도록 하였다. 설문지 이해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들에게는 질문하도록 하여 질문에 쉽게 응할 수 있도록 하였다. 총 134부가 수거되었으며, 단위무응답에 해당하는 4부를 제외한 130부를 최종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표본수를 결정하기 위하여 G\*Power3.1.3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산출한 결과, 회귀분석에 필요한 효과크기 .15, 유의수준  $\alpha$ 를 .05, 검정력  $(1-\beta)$ 을 .80, 예측변수 9개로 계산하였을 경우 최소 114명이 요구되어 본 연구의 표본수는 충족하였다.

## 2.3 연구도구

### 2.3.1 자아존중감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자아존중감 척도로서 Rosenberg[14]가 개발하고, 전병제[15]가 변안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는 자아가치와 자아승인을 측정하기 위해 만들어진 자기보고식 척도로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긍정 5문항, 부정 5문항으로 Likert 5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까지 5점이며, 부정 문항은 역산 처리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을 나타낸다. 전병제[15]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는 .85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alpha는 .84이었다.

### 2.3.2 생명의료윤리의식

간호대학생의 생명의료윤리의식에 관한 도구로는 이영숙[16]이 고안한 윤리적 가치관 척도도구를 권선주[17]가 수정·보완하여 만든 생명의료윤리의식 설문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태아생명권 5문항, 인공임신 중절 6문항, 인공수정 7문항, 태아진단 5문항, 신생아 생명권 5문항, 안락사 5문항, 장기이식 4문항, 뇌사 5문항으로 총 42문항으로 Likert 4점 척도 평점방법을 사용하였다. 부정문항은 역산 처리하였고 총 점수가 높을수록 인간생명을 존중하는 생명의료윤리의식이 높음을 의미한다. 권선주[17]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는 .76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alpha는 .78로 나타났다.

### 2.3.3 삶의 질

간호대학생의 삶의 질 측정도구로는 Bigot[18]의 생활 만족에 관한 척도(Life Satisfaction Index)를 임아름

[19]이 수정·보완한 것으로 삶의 질에 대해 10문항으로 이루어졌다. Likert 5점 척도로 삶의 질이 ‘매우 안 좋다’가 1점, ‘매우 좋다’가 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삶의 질이 좋은 것을 의미한다. 개발당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는 .70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alpha는 .94이었다.

### 2.3.4 죽음태도

간호대학생이 인지하는 죽음태도는 Collett 등[20]이 개발한 죽음불안도구(Fear of Death Scale, FODS)를 고승덕 등[21]이 수정·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고, 본 연구에 맞게 2문항을 제외한 총 23문항을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죽음태도에 관한 인식을 측정하기 위해 죽음에 대한 수용태도, 불안, 자살에 대한 태도, 내세관, 안락사, 그리고 죽음교육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Likert 5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까지 5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죽음태도가 긍정적인 것을 의미한다. 고승덕 등[21]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는 .77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alpha는 .74로 나타났다.

## 2.4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14.0K for windows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로 구하였고, 대상자의 자아존중감, 생명의료윤리의식, 삶의 질 및 죽음태도 지각정도는 평균과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으로 산출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아존중감, 생명의료윤리의식, 삶의 질 및 죽음태도 차이는 Independent t-test, One-way ANOVA를 사용하여 분석하였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항목의 사후분석은 Scheffe's test를 실시하였다. 자아존중감, 생명의료윤리의식, 삶의 질 및 죽음태도의 상관관계는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s로 분석하였고, 자아존중감, 생명의료윤리의식, 삶의 질이 죽음태도에 미치는 영향은 Multiple regression을 사용하였다.

## 3. 연구결과

### 3.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연구대상자는 130명으로 3학년 학생이 75명(57.6%)으로 4학년 보다 많았고, 종교가 있는 경우가 59명(45.4%), 경제 상태는 65명(50.0%)이 중으로 평가하였다. 전공만족도는 85명(65.4%)이 상으로 평가하였고, 지인의 죽음에 대한 경험과 죽음에 대한 교육은 각각 없음이 87명(66.9%), 90명(69.3%)로 나타났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130)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School year	Junior	75	57.6
	Senior	55	42.4
Religion	Catholicism	27	20.7
	Protestantism	25	19.3
	Buddhism	7	5.4
	None	71	54.6
Economic state	High	38	29.2
	Middle	65	50
	Low	27	20.8
Major satisfaction	High	85	65.4
	Middle	34	26.2
	Low	11	8.4
Experience of acquaintance death	Yes	43	33.1
	No	87	66.9
Death education	Yes	40	30.7
	No	90	69.3

### 3.2 연구대상자의 자아존중감, 생명의료 윤리의식, 삶의 질 및 죽음태도 정도

연구대상자의 자아존중감, 생명의료윤리의식, 삶의 질 및 죽음태도 정도는 Table 2와 같다. 자아존중감은 평균 3.31±1.18점, 생명의료윤리의식은 2.90±0.59점, 삶의 질은 3.64±0.09점 그리고 죽음태도는 3.19±0.66점으로 나타났다.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of self-esteem, Awareness of biomedical ethics, Quality of life and Death attitude (N=130)

Variable	M±SD	Mini	Max
Self-esteem	3.31±1.18	1.00	5.00
Awareness of biomedical ethics	2.90±0.59	1.00	4.00
Quality of life	3.64±0.09	1.00	5.00
Death attitude	3.19±0.66	1.00	5.00

### 3.3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아존중감, 생명의료윤리의식, 삶의 질 및 죽음태도 차이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아존중감, 생명

의료윤리의식, 삶의 질 및 죽음태도 차이는 Table 3과 같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아존중감, 생명의료윤리의식, 삶의 질 및 죽음태도의 차이는 Table 3과 같다. 학년별에 따른 차이는 생명의료윤리의식( $p=.03$ )에서 유의하였다. 연구대상자들의 종교에 따라서는 각 변수와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경제수준에서는 생명의료윤리의식( $p=.01$ )과 삶의 질( $p=.01$ )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고, 사후검증결과 생명의료윤리의식과 삶의 질 모두에서 경제수준이 상인 집단이 중, 하인 집단보다 높게 나타났다.

전공만족도에서는 자아존중감과 삶의 질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사후검증 결과 전공만족도가 상인 집단이 중, 하인 집단보다 높게 나타났다. 또한 죽음교육여부에 따라 죽음태도( $p=.05$ )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 3.4 연구대상자의 자아존중감, 생명의료 윤리의식, 삶의 질 및 죽음태도의 상관관계

연구 대상자의 자아존중감, 생명의료윤리의식, 삶의 질 및 죽음태도와의 상관관계는 Table 4와 같다. 연구대상자의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삶의 질( $r=.227$ ,  $p<.001$ )이 높게 나타났으며, 죽음태도( $r=.284$ ,  $p<.001$ )와도 양의 상관관계로 나타났다. 또한 연구대상자의 생명의료윤리의식수준과 죽음태도( $r=.158$ ,  $p=.002$ )와도 양의 상관관계인 것으로 나타났다.

### 3.5 연구대상자의 자아존중감, 생명의료 윤리의식, 삶의 질이 죽음태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 대상자의 자아존중감, 생명의료윤리의식, 삶의 질이 죽음태도에 미치는 영향은 Table 5와 같다. 다중회귀분석을 위하여 각 변수들의 공차한계는 .949으로 0.1이상이었으며, 분산팽창인자가 1.001로 모두 10보다 낮아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잔차의 독립성검정을 위해 Durbin-Watson 값을 구한 결과 1.572으로 2에 가까워 오차의 자기상관성은 없음을 확인하였다. 다중회귀분석 결과 연구대상자의 자아존중감과 생명의료윤리의식은 죽음태도의 영향요인으로 확인되었고, 두 요인은 21.2%의 총 설명력을 지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Table 3.** Difference of self-esteem, Awareness of biomedical ethics, Quality of life and Death attitude by general characteristics (N=130)

Characteristics	Categories	Self-esteem		Awareness of biomedical ethics		Quality of life		Death attitude	
		M(SD)	F(p)	M(SD)	F(p)	M(SD)	F(p)	M(SD)	F(p)
School year	Junior	4.24 (0.75)	.11	2.94 (0.71)	4.47 (.03)	3.64 (0.84)	.86	2.78 (0.94)	0.15 (.69)
	Senior	4.23 (0.71)	(.74)	3.18 (0.87)		3.56 (0.91)	(.35)	2.65 (1.00)	
Religion	Yes	4.34 (.66)	.80	3.14(.78)	.93	3.57(.88)	.00	4.67(.54)	1.66 (.20)
	No	4.17 (.78)	(.37)	2.96(.77)	(.33)	3.64(.87)	(.99)	4.60(.59)	
Economic state	High <sup>1</sup>	4.44 (0.68)		3.34 (0.74)		3.94(.76)		4.71(.45)	
	Middle <sup>2</sup>	4.16 (0.74)	2.04 (.13)	2.92 (0.73)	4.27 (.01)	3.47(.81)	4.25 (.01)	4.61(.62)	.62 (.53)
	Low <sup>3</sup>	4.14 (0.76)		2.8 (0.84)		3.44(1.05)		4.55(1.05)	
	<i>scheffe</i>	-		1>3, 2>3		1>3, 2>3		-	
Major satisfaction	High <sup>1</sup>	4.39 (0.65)		3.07 (0.76)		3.79(0.85)		2.76 (0.96)	
	Middle <sup>2</sup>	4.00 (0.79)	5.86 (.004)	3.0 (0.79)	2.04 (.13)	3.27(0.62)	6.02 (.003)	2.51 (0.90)	1.80 (.16)
	Low <sup>3</sup>	3.81 (0.87)		2.90 (0.94)		3.18(1.25)		3.09 (1.13)	
	<i>scheffe</i>	1>3, 2>3		-		1>3, 2>3		-	
Death education	Yes	4.15(.80)	0.08	3.1(.81)	0.12	3.55(.84)	0.05	4.55(.64)	3.38
	No	4.28(.70)	(.77)	3.01(.77)	(.73)	3.63(.89)	(.81)	4.66(.54)	(.05)

**Table 4.** Correlation matrix of variables (N=130)

Variables	1	2	3	4
Self-esteem	-			
Awareness of biomedical ethics	0.003 (.90)	-		
Quality of life	0.227 (<.001)	0.030 (.278)	-	
Death attitude	0.284 (<.001)	0.158 (.002)	0.043 (.124)	-

Data were presented with r(p).

**Table 5.** Influencing factors on Death attitude (N=130)

Variable	B	SE	$\beta$	t	p
Constant	3.503	.201		13.541	<.001
Self-esteem	.292	.032	.252	5.378	<.001
Awareness of biomedical ethics	.155	.044	.116	2.967	0.003

R<sup>2</sup>=24.2 Adj. R<sup>2</sup>=21.2, F=10.4 (p<.001)

#### 4. 논의

본 연구의 대상자인 여자 간호대학생 130명은 모두 임상실습을 경험한 3학년(57.6%)과 4학년(42.4%)이었다. 종교가 있었던 경우가 45.4%, 가정 경제상황이 ‘중’

인 경우가 50.0%이었으며, 전공만족도에서 중간이상 만족하는 경우가 91.6%로 유사연구에서 보였던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도 89.2%[9]나 89.4%[22]와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또한 종속변수인 간호대학생의 죽음태도 정도는 본 연구에서 평균 3.19(±0.66)로 보통 정도이었는데, 유사한 김영희 등[23]의 간호대학생 연구에서는 평균 3.22(±0.39)라고 보고하였고, 이용미 등[24]은 하위영역 평균이 2.4~2.8 수준으로 보고하여 대체로 본 연구대상자들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았다. 이는 본 연구대상자들이 모두 임상실습을 경험한 3, 4학년 간호대학생이므로 나타난 결과라고 생각된다.

본 연구의 결과, 간호대학생의 죽음태도에 영향요인으로 자아존중감과 생명의료윤리의식이었고, 설명력은 21.2%로 나타났다. 먼저 죽음태도에 가장 큰 영향 요인은 자아존중감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김경혜 등[25]의 연구에서 자아존중감이 죽음태도와 상관관계가 있었던 결과를 지지하며,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은 스스로에 대한 가치관이 높고 긍정적으로 느끼므로 행복하고 안정적인 반면 낮은 사람은 불행감과 분노 및 갈등을 자주 느끼며 인간의 취약성과 죽음의 필연적인 과정에 대한 관심을 회피하는 심리적 반응이 나타날 수 있다는 주장

을 지지한다[25,26]. 자아존중감이 긍정적인 경우 자신과 주위 환경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해석하며 적극적인 대처 행동을 하는 반면, 자아 존중감이 낮은 사람은 사물을 왜곡되게 지각하거나 삶의 방식이 소극적이며 자신에 대한 불확실한 요소를 환경에 투사하고 행동이 불안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22]. 따라서 죽음이라는 불안정하고 불확실한 상황은 자아존중감이 낮은 대상자들에게 관심 회피 상황을 조장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자아존중감은 우울감을 유발하면서 삶의 만족도를 저하시키고 자살충동이나 자살생각을 유발하므로 부정적인 죽음태도를 형성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6]. 본 연구에서 자아존중감과 삶의 질이 긍정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낸 것은 두 요인이 상호작용하면서 죽음태도에 영향을 끼친다고 하는 주장과 맥락과 같으며, 자아존중감이 영적 안녕과 상호관계를 가지고 정신건강, 인간관계, 더 나아가 삶의 행복에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을 지지한다고 여겨진다[27].

그러나 본 연구에서 삶의 질은 죽음태도에 유의한 영향요인으로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것은 대학생들이 평소 죽음생각을 많이 하는 경우 삶의 만족도가 낮았고, 우울한 경향을 보이면서 죽음 태도가 부정적이었으며, 삶의 만족도가 높을수록 죽음태도가 긍정적이라는 조계화와 이현지[28]의 주장과 상반되는 것으로서 삶의 질이 갖는 개인의 전반적인 안녕감이라는 지극히 주관적인 개념에서 기인하는 결과로 생각된다[29]. 최근 대학생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인 취업이나 진로에 대해 대학생의 삶의 질에 중요한 요인으로 진로정체감을 제시하면서 청년기로 넘어가는 기로에서 발달과업인 진로정체감 형성은 개인의 자아효능감과 관련성을 가지므로 삶의 질에 중요한 요인이라고 하였다[29]. 본 연구의 대상자들이 3~4학년으로 취업 문제를 직면하고 있는 학년이라는 점과 연구결과에서 경제수준과 전공만족도에 따라 삶의 질의 차이가 있었고, 전공만족도에 따라 자아존중감의 차이가 있었다는 점은 이들에게 삶의 질은 지금 그들 앞에 놓여있는 진로나 취업이 더 중요한 요인임을 반증한다고 생각한다. 황라일[30]은 간호대학생의 취업스트레스와 우울이 비교적 높은 수준이라고 하면서 취업스트레스의 주요인으로 우울, 연령 경제수준 등이라고 하면서 전공특성에 맞는 취업스트레스 관리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 삶의 질은 죽음태도에 영향요인은 아니었으나 경제수준과 전공만족도에 따라 차이가

난 것은 이러한 주장이 뒷받침하는 결과라고 생각한다.

간호대학생의 죽음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요인은 생명의료윤리의식이었다. 이것은 인간생명을 존중하는 윤리의식으로 이에 대한 가치관이 확고하지 않은 간호대학생은 생명의료윤리 상황에서 갈등이 발생하고 죽음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갖게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23,31], 본 연구는 이러한 주장을 지지한다. 또한 인간생명 존엄성을 기반으로 죽음 태도를 확립해 놓지 않은 간호사는 임종환자를 간호해야 하는 상황에서 부담감, 공포, 좌절감, 우울감 등을 느끼고 스트레스를 경험한다고 하였고[32], 간호대학생 45.9%가 생명의료윤리 가치관이 상황에 따라 바뀐다고 하여 가치관이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우리나라 간호대학생 상당수가 졸업 후 임상실무에서 생명의료윤리 갈등상황을 경험할 것으로 생각되며, 임상실무 전 간호대학생 시기에 생명의료윤리의식에 대한 가치관을 확립할 수 있는 충분한 교육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23,24,33].

본 연구결과에서 생명의료윤리의식은 4학년과 3학년 간에 평균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임상실습과 학습경험이 많은 간호대학생이 상대적으로 그러한 경험이 적은 간호대학생에 비해 자신의 죽음에 대해 생각하는 경험이 월등히 많고 삶과 죽음에 대한 개인적인 철학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한 결과[27]와 유사하다. 그 이유는 실습이나 학습과정을 더 경험하므로 생명의료윤리 가치관을 확립할 수 있는 기회의 폭이 넓어졌고 [22,34], 학습과정을 통해 생명의료윤리의식을 강화시킬 수 있다는 기존의 주장을 반영하는 결과라고 생각된다[30].

또한 경제수준이 ‘상’이었을 때 생명의료윤리의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간호대학생은 임상실습 과정 중 질병이 있는 대상자를 만나고 그들의 치료과정을 접하면서 자신이 처한 경제 상태와 건강을 관련지어 인식하고 이것이 죽음태도에 반영되게 된다는 주장[23]과 맥락을 같이한다.

종교와 죽음태도에 대한 연구[35,36]에서 간호대학생의 영적 안녕 상태와 죽음태도가 양의 상관관계를 갖는다고 주장하여 간호제공자의 영적 안녕이 임종환자 간호를 위한 준비에 필요하다고 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결과는 이와는 상반된 결과를 보였는데, 연구변수인 종교 유무가 영적안녕 수준을 측정하기에 제한된 특성만을 반영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고 생각되며, 이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간호대학생의 자아존중감은 전공만족도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생명의료 윤리의식은 경제수준이 따라 차이가 있었으며 고학년에서 높게 나타났다. 특히 간호대학생의 죽음태도는 자아존중감과 생명의료 윤리의식이 높은 학생들에서 유의한 결과가 나타났으므로, 전공만족도를 고려한 전공교과 및 비교과과정 운영을 통해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키고, 생명의료윤리 가치관을 확립할 수 있는 임상상황의 시뮬레이션 표준화 환자교육과정을 편성하여 간호대학생의 죽음태도를 보다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대학교육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 References

- [1] W. A. Hurtig, L. Stewin, "The Effect of Death Education and Experience on Nursing Students' Attitude towards Death", *Journal of Advanced Nursing*, 15, pp29-34, 1990.  
DOI: <http://dx.doi.org/10.1111/j.1365-2648.1990.tb01669.x>
- [2] C. T. Beck, "Nursing Students Experiences caring for Dying Patients", *Journal of Nursing Education*, 36, 9, pp408-15, 1997.
- [3] K. H. Jo, "Development of a Nurse's Suffering Experience Scal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32, 2, pp243-253, 2002.
- [4] T. S. Kim, "The Ethical Values: A Comparison of Student in Nursing and Medicin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29, 4, pp892-902, 1999.
- [5] Amor. A. H, Joana G. B, "Death attitudes and emotional intelligence in nursing students", *Omega*, 66, 1, pp39-55, 2013.
- [6] Edo. G. M, Monforte. R. C, Aradilla. H. A, Tomas. S. J, "Death Attitude and Positive Coping in Spanish Nursing Undergraduate: a cross-sectional and correlational study. *Journal of Clinical Nursing*, 24, 17-18, pp2429-2438, 2015.
- [7] Sedigheh. I, Karin. A, Terttu. H, Stefan. S, "Caring for dying people: Attitudes among Iranian and Swedish Nursing Students" *Indian Journal of Palliative Care*, 16, 3, pp147-153, 2010.
- [8] Iranmanesh. S, Savenstedt. S, Abbaszadeh. A, "Student nurse' attitude towards death and dying in south-east Iran" *International Journal of Palliative Care*, 14, 5, pp214-219, 2008.  
DOI: <http://dx.doi.org/10.12968/ijpn.2008.14.5.29488>
- [9] K. H. Kim, K. D. Kim, H. S. Byun B. Y. Chung, "Spiritual Well-Being, Self Esteem, and Attitude to Death among Nursing Students", *Asian Oncology Nursing*, 10, 1, pp1-9, 2010.
- [10] K. H. Jo, H. J. Lee, Y. J. Lee, "Types of Students' Death Attitudes Majoring in Human Service Area: Q-Methodological Approach".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35, pp829-841, 2005.
- [11] M. J. Han, "Developmental Study of Death Anxiety of Death According to Coping Style, Locus of Control Self-Esteem", *Korean Journal of Psychology*, 21, 2, pp179-98, 2002.
- [12] S. H. Kim, D. H. Kim, H. M. Kim, "Comparison of Attitudes of Nursing Students toward Death, Self-esteem and Life Satisfaction according to clinical Experience" *Korean Journal of Hospital Palliative Care*, 14, 3, pp144-151, 2011.
- [13] Amenta. M. M, "Traits of Hospice Nurses compared with those who work in Traditional Settings",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40, 2, pp414-420, 1984.  
DOI: [http://dx.doi.org/10.1002/1097-4679\(198403\)40:2%3C414::AID-JCLP2270400205%3E3.0.CO;2-X](http://dx.doi.org/10.1002/1097-4679(198403)40:2%3C414::AID-JCLP2270400205%3E3.0.CO;2-X)
- [14] Rosenberg. M,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65.
- [15] B. J. Jeon, "Self-esteem: A Test of It's Measurability", *Yonsei University Journal*, 11, pp107-124, 1974.
- [16] Y. S. Lee, "A Study of the Ethical Values of Korean Nurse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20, 2, pp249-270, 1990.
- [17] S. J. Kwon, A Study on the Consciousness of Bio-Medical Ethics of the Nursing Students and Medical Students. pp63-66, Unpublished Master's Thesis, Keimyung University, 2003.
- [18] A. Bigot, "The Relevance of American Life Satisfaction Indices for Research on British Subjects Before and After Retirement", *Age and Ageing*, 3, 2, pp113-121, 1974.  
DOI: <http://dx.doi.org/10.1093/ageing/3.2.113>
- [19] A. L. Lim, Effects of University Students' Leisure Motivation on Leisure Satisfaction and Quality of Life. pp47-52, Unpublished Master's Thesis, DanKook University, 2012.
- [20] L. Collett, D. Lester, "Fear of Death and the Fear of Dying", *Journal of Psychology*, 72, pp179-181, 1969.  
DOI: <http://dx.doi.org/10.1080/00223980.1969.10543496>
- [21] S. D. Ko, E. J. kim, Y. K. Kim, "A Study on the Influence of the Preparative Education on the Elderly's Attitude for Death", *Korean Journal of Health Education and Promotion*, 16, 2, pp81-92, 1999.
- [22] S. H. Kim, D. H. Kim, H. M. Son, "Comparison of Attitudes of Nursing Students toward Death, Self-esteem and Life Satisfaction according to Clinical Experience", *The Korean Journal of Hospice and Palliative Care*, 14, 3, pp144-151, 2011.
- [23] Y. H. Kim, Y. S. Yoo, O. H. Cho, "Nursing Students' Awareness of Biomedical Ethics and Attitudes toward Death of Terminal Patients", *The Korean journal of hospice and palliative care*, 16, 1, pp19, 2013.
- [24] Y. M. Lee, K. A. Jung, M. A. Son, "Attitude towards Death and Euthanasia among Nurses and Nursing Students : In Convergence Era",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3(6), pp213-224, 2015.  
DOI: <http://dx.doi.org/10.14400/JDC.2015.13.6.213>
- [25] K. H. Kim, K. D. Kim, H. S. Byun B. Y. Chung, "Spiritual Well-Being, Self Esteem, and Attitude to Death among Nursing Students", *Asian Oncology Nursing*, 10, 1, pp1-9, 2010.
- [26] M. J. Han, "Developmental Study of Death Anxiety

According to Coping Style, Locus of Control and Self-esteem”, Korean Journal of Psychology: General, 21, 2, pp179-198, 2002.

- [27] E. S. Kang, “Relationship of the Purpose in Life, Spiritual Well-being Self-concept, Self-esteem of Adolescenc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12, 3, pp245-259, 2003.
- [28] K. H. Jo, H. J. Lee, “Relationship between Self-efficacy, Depression, Level of Satisfaction and Death Attitude of College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38, 2, pp229-237, 2008.  
DOI: <http://dx.doi.org/10.4040/jkan.2008.38.2.229>
- [29] H. S. Park, B. S. Kwon, “Satisfaction with Life and Its Predictors of College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sychiatry and Mental Health Nursing, 15, 1, pp48-56, 2006.
- [30] R. I. Hwang, “Factors affecting Employment Stress among College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Public Health Nursing, 26, 2, pp215-226, 2012.  
DOI: <http://dx.doi.org/10.5932/JKPHN.2012.26.2.215>
- [31] Y. H. Kwon, “Factors affecting the consciousness of biomedical ethics of the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Public Health Nursing, 23, 2, pp262-272, 2009.
- [32] A. E. Stewart, J. H. Lord, D. L. Mercer. “A survey of professionals' training and experiences in delivering death notifications”, Death Studies, 24, 7, pp611-631, 2000.  
DOI: <http://dx.doi.org/10.1080/07481180050132811>
- [33] M. Y. Moon, M. K. Jeon, A. H. Jaung, “Relationship between Nurses' Consciousness of Biomedical Ethics, Job Satisfaction and Nursing Performance”, Journal of the Korean Bioethics Association, 14, 1, pp27-47, 2013.
- [34] Y. J. Lee, G. H. Jo, H. J. Lee, “Effects of Significant Other's Death on High-touch Major Students”, The Korea Journal of Youth Counseling, 13, 1, pp113-124, 2005.
- [35] H. J. Lee, “Spiritual Well-Being and Perception of Death in Nursing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Hospice and Palliative Care, 7, 1, pp29-36, 2004.
- [36] Y. E. Lee, H. S. Park, S. K. Son, “The Relationship between Spiritual Well-Being and Attitude toward Death in Nursing Students”, Faith & Scholarship, 12, 3, pp195-232, 2007.

**김 종 근(Jong Gun Kim)**

[정회원]



- 2015년 2월 : 인하대학교 일반대학원 의학과 (의학석사)
- 2015년 3월 :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과 (박사과정)
- 2015년 9월 ~ 현재 : 수원여자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관심분야>

보건의료와 간호정책, 국제보건, 간호윤리

**오 수 민(Su Min Oh)**

[정회원]



- 2001년 2월 :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보건교육학과 (교육학석사)
- 2013년 2월 : 고려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박사)
- 2004년 3월 ~ 현재 : 수원여자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관심분야>

성인간호, 중환자간호, 간호시뮬레이션

**천 의 영(Eui Young Cheon)**

[정회원]



- 2004년 8월 :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석사)
- 2008년 2월 :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박사)
- 2007년 3월 ~ 현재 : 수원여자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관심분야>

사회적지지와 사회연결망, 노인건강, 삶의 질

**유 장 학(Jang Hak Yoo)**

[정회원]



- 2001년 8월 : 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학석사)
- 2007년 2월 : 연세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박사)
- 2007년 9월 ~ 2012년 8월 : 세한대학교 간호학과
- 2012년 9월 ~ 2014년 8월 : 인천재능대학교 간호과
- 2014년 9월 ~ 현재 : 수원여자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관심분야>

노인, 청소년, 스트레스